

# 目 次

第 1 主題：巨視經濟政策 運用方案／韓 基 春 .....	1
I . 序／ 3	
II . 産業의 空洞化現象／ 4	
1 . 實物部門의 收益性 低下／ 5	
2 . 製造業部門 設備投資의 減少／ 8	
III . 地下經濟化 現象／ 10	
IV . 對 策／ 13	
1 . 金利引下政策／ 13	
2 . 租稅政策의 彈力的 運用／ 15	
3 . 企業倫理의 確立問題／ 18	
第 2 主題：國際價格構造變化의 活用方案／朴 宇 熙 .....	21
- 産業構造改編과 産業政策의 方向 -	
I . 國際價格構造의 變化／ 23	
II . 3 低推移의 展望／ 24	
III . 韓・日經濟關係의 特質과 國產開發對策／ 25	
IV . 合理的인 産業政策의 方向／ 27	
<討論>：轉換期 韓國經濟의 對應戰略 .....	31
韓基春 朴宇熙 林東昇 王然均	
朴振根 李奎億 具石謨	

< 第 1 主題 >

巨視經濟政策 運用方向

韓 基 春

( 經博・外國語大 教授 )



## I. 序

巨視的 經濟政策의 窮極的 目標은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에 있으며 國民全體의 生活水準의 向上은 就業機會의 擴充과 國民所得의 增大 즉, 國民經濟의 總體的인 成長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經濟成長은 우리 經濟를 構成하는 産業의 生産活動結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産業의 生産活動이 過去와 같은 活氣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産業의 主役으로서의 企業인들이 萎縮되어 있고 投資 「마인드」도 크게 低下되었다. 最近 조금은 나아지고 있으나 예전같은 事業에의 意慾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여러가지 國內外的인 要因들이 複合的으로 作用한 結果라 하겠다. 적어도 지난 5年間에는 政策을 말은 사람들의 無事安逸主義的인 政策의態度에는 우리 經濟를 威脅하고 있는 高油價·高「달러」·高金利의 이른바 對外的인 3惡材를 핑계로 돌려 「이럴 때 우리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反問이 었보였다. 실로 72年만 해도 배럴당 2.59 「달러」 했던 油價가 81年 34 「달러」를 고비로 昨年에 27 「달러」 線으로 무려 10倍를 넘는 高油價의 壓力에 雪上加霜格인 81年 以來의 5年間에 걸친 高「달러」·高金利現象은 우리나라의 輸出을 그만큼 어렵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企業의 營業不振, 經營收支 惡化 그리고 投資不振, 失業의 增大 그리고 國民生活의 어려움으로 이어져왔다.

이와 같은 그간의 産業活動의 不振現象을 닦할 수 있었던 3惡材가 昨年 가을부터 없어져 이제는 低油價·低「달러」·低金利란 3好材로 돌아서게 되었다. 論理대로 말한다면 이제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經濟는 정말 잘 될 것이라고 安逸한 생각에 安住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現實은 그렇지 않다는 事實을 우리는 直視해야 한다. 먼저 지난날의 3惡材속에서 우리와 같은 與件인 지난날의 日本이나 臺灣과 같은 나라는 그간의 安定속에 國際競爭力의 強化로 經營收支의 黑子를 記錄的으로 更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3低時代의 惠澤은 우리만의 專有物이 아니며 우리와의 競爭國과 全世界가 共有하는 經濟與件이라는 點이다.

바로 이러한 點에서 지난날의 3惡材가 3好材로 돌아서게 된 지금의 經濟與件을 우리는 어떻게 積極的이며 보다 能動的으로 活用해야 할 것인가 하는 政策的 課題가 提起된다. 分明히 오늘날 經濟政策的 一大變革期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여기서는 그러한 課題로서 한두가지 問題를 學論해 보고자 한다.

## Ⅱ . 產業의 空洞化現象

1980年代에 접어들어 美日間の 貿易摩擦은 產業·經濟·技術 마찰로 이어지고 있으며, 產業·經濟摩擦問題와 關聯하여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論爭의 불씨의 하나가 產業의 空洞化(hollow industry) 또는 企業의 空洞化(hollow corporate) 現象의 問題다.<sup>1)</sup> 오늘날 美國의 年 1,500억「달러」의 경상수지의 적자, 對日本과의 年 500억「달러」의 적자원인의 근원은 미국제조공업의 쇠퇴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기업은 저임금국가로 부터 部品을 購入하거나 日本과 같은

---

註 1) Global Competition - New Reality, the Report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eaded by John A. Young, Jan., 1985 and Special Report on "The Hollow Corporation" in Business Week, March 3, 1986. pp 53 ~ 75.

나라로부터 組立한 製品을 값싸게 輸入하여 結果적으로 美國은 産業 強大國으로서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美國은 한때 世界第1의 鐵鋼國이었으나 보호무역주의 安住속에 近代化에 뒤져 鐵鑛石으로 부터 製鐵産業工程의 가장 基礎인 高爐를 거의 閉鎖해 버린 結果를 가져왔다. 自動車 하면 美國이었던 것이 이제 日本으로 옮겨지고 있다. 오늘날 美國經濟는 工業生産의 基盤을 잃어가고 있으며 美國의 生産業者들은 産業役軍이 아니라 해외생산업자들을 위한 商業資本家로 轉落하고 있다. 美國의 이와 같은 産業과 企業의 空洞化現象은 결코 太平洋 바다 건너 對岸의 불구경적인 美國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經濟에도 이미 일기 시작하고 있는 怪疾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의 企業人들의 事業活動도 物的 生産活動을 回避하고 非物的 生産活動쪽으로 偏重되어가는 風潮를 들 수 있다. 돈이란 것은 物的 生産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그 價値가 發揮될 수 있는 법이며 物的 生産없는 紙幣란 한낱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平凡한 眞理를 잊어 버리고 「어떻게 하던 돈만 벌면 된다」는 思考와 그러한 行動을 정책적으로 방관해왔거나, 비록 意圖적인 것은 아니나 結果적으로는 助長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 1. 實物經濟部門의 收益性 低下

物的 生産部門과 非物的 生産部門 또는 實物經濟部門과 貨幣經濟部門間的 收益性を 나타내는 指標로서 각각 製造業의 총자본에 대한 경상이익율과 회사채수익율을 들 수 있으며 이들 利用可能한 年度에 限하여 收錄해 본 結果는 다음 <表 1>과 같다.

이 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實物經濟의 中核적인 産業인 製造業의 收益性は 貨幣經濟部門의 收益性に 비하여 1/5에 못 미치는 19.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더욱 놀라운 事實은 우리

<表 1> 年度別 製造業 總資本經常收益率 및 會社債 收益率 變動推移

(單位：年%)

年度 및 期間	製造業 總資本 經常收益率	會社債 收益率 <sup>1)</sup>
65	7.9	-
66	7.8	-
67	6.8	-
68	5.3	-
69	3.7	-
(65~69)	(6.3)	-
70	2.5	-
71	1.0	-
72	3.8	22.9
73	7.9	21.8
74	5.7	21.0
(70~74)	(4.1)	(21.9)
75	3.9	20.1
76	4.6	20.4
77	4.5	20.1
78	5.0	21.1
79	3.4	26.7
(75~79)	(4.3)	(21.7)
80	-0.2	30.1
81	0.0	24.4
82	1.0	17.3
83	3.3	14.2
84	3.4	14.1
(80~84)	(1.7)	(20.0)
85	-	14.2
(65~84)	(4.1)	(21.2)

註 1) 시장수익율 기준

資料：企業經營分析 各 年度，韓國銀行

나라 製造工業의 收益性은 지난 20年間 계속 低下되고 있는 趨勢에 있으며 1960年代 後半期の 평균수익율 6.3%에서 1970年代 4.2% 다시 1980~84年の 최근 5년간은 고작 1.7%란 미미한 實績을 記錄하고 있다는 점이다. 「10.26」事態등 政治적으로 불안했었던 1980年과 1981年을 제외하더라도 1983년과 1984年 各各 3.3%와 3.4%의 수익율은 1960年代 후반의 6.3%대의 수익율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貨幣金融部門의 수익성은 지난 10여년동안 20%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온 점 우리의 주목을 요한다. 1983년이래 연 3年間 會社債收益率이 14%대로 다소 낮아지고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20%대에 비한다면 약 30%의 감소에 지나지 않으며 위의 製造工業의 수익성의 半減現狀과는 대조적이라고 하겠다.

당초 實物經濟를 도와주고 또 實物經濟部門에 비하여 낙후된 金融部門을 도와준다는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收益性的 상대적인 격차를 심화시켜 사람도 자금도 製造業을 떠나게 하고 있다.

金融革新, 金融自律化란 이름아래 경영방식을 배워온 「머니·게임」(money game)의 博士급 投機士들은 재무제표상의 수지타산과 수익율을 올리는 것만이 經營의 진수라고 알고 있고 또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生産工場에서의 공장새마을운동이니 TQC운동이니 해서 1%의 원가하락이 몇百名の 손톱을 닳게하고 이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이거늘 자금을 한번만 잘 굴리면 당장에 몇%의 收益性を 불로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우리 經濟의 풍토의 개선없이는 物的 生産部門으로 유능한 頭腦와 資金을 유치하여 생산전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意慾을 올려줄 수는 없다고 본다.



## 2. 製造業部門 設備投資의 減少

金融財源의 調達面에서나 投資資源配分에서 製造業部門은 날로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의외로 빠른 속도로 우리經濟의 脫工業化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中進國水準에서 美國과 같은 일부 成熟된 先進工業國의 經濟「소프트」(Soft)化에 따른 投資「패턴」(Pattern)을 닮아가고 있어 인체에 비한다면 成人도 되기 전에 미리 늙어버리는 일종의 耑老現象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한 한 지표로 다음 <表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預金銀行의 年度別, 産業別 貸出額과 構成比의 變動推移를 들 수 있다. 이 表에서 볼 수 있듯이 1973~85年間的 12年동안 製造業部門의 貸出比重은 10%「포인트」나 줄어들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85年價格으로 약 3兆 3,800億원에 해당하는 投資財源이 「서어비스」業이나 建設業 쪽에 돌려지게 되었다. 1970年代 央期에는 總貸出額의 57%대가 製造業으로 돌려졌으나 80年代初인 82年, 83年, 84年 그리고 85년에는 각각 47.6%, 45.6%, 43.9% 그리고 43.3%로 뚝 떨어졌으며 해마다 그 비중은 줄어들고 최근 3年間은 年平均 1.43%「포인트」씩, 84年價格으로 약 4,850億원씩이 製造業에서 다른 主로 非物的 生産部門으로 割愛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82~85年 기간은 政府가 安定을 표방한 가운데 超緊縮政策으로 값비싼 貸出資金을 그나마 과거의 제 몫도 차지 못했었다고 본다. 어느 意味에서 오늘날의 物價安定은 우리나라 製造工業의 犧牲아래 이룩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80年以後 製造業部門의 고정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그만큼 우리나라 經濟의 生産能力의 擴充機會를 상실한 셈이며 따라서 雇傭機會의 확

<表 2> 預金銀行의 年度別, 産業別 貸出額 및 構成比 變動推移

(單位: 億원, %)

年度別	農林水産業	鑛業	製造業	建設業	其他서비스業	計
1973	2,017 (12.7)	222 (1.4)	8,495 (53.5)	1,525 (9.6)	3,616 (22.8)	15,875 (100.0)
1974	2,622 (10.8)	292 (1.2)	14,025 (57.8)	2,367 (9.8)	4,972 (20.4)	24,278 (100.0)
1975	3,033 (10.4)	349 (1.2)	16,604 (57.1)	2,457 (8.5)	6,612 (22.8)	29,055 (100.0)
1976	3,838 (10.3)	528 (1.4)	21,336 (57.3)	2,594 (7.0)	8,953 (24.0)	37,240 (100.0)
1977	5,084 (10.8)	518 (1.1)	26,631 (56.6)	3,784 (8.0)	11,072 (23.5)	47,089 (100.0)
1978	6,584 (10.0)	766 (1.2)	35,076 (54.4)	5,958 (9.0)	16,806 (25.4)	66,000 (100.0)
1979	8,168 (9.1)	1,221 (1.4)	48,742 (54.3)	10,038 (11.2)	21,609 (24.0)	89,778 (100.0)
1980	10,327 (8.5)	1,321 (1.1)	66,044 (54.1)	14,654 (12.0)	29,698 (24.3)	122,044 (100.0)
1981	13,382 (8.4)	1,292 (0.8)	86,002 (53.9)	14,807 (9.3)	44,067 (27.6)	159,550 (100.0)
1982	15,302 (7.6)	1,747 (0.9)	86,360 (47.6)	20,261 (10.0)	68,538 (33.9)	202,258 (100.0)
1983	19,569 (8.1)	1,559 (0.6)	109,997 (45.6)	29,107 (12.1)	81,271 (33.6)	241,503 (100.0)
1984	24,693 (8.8)	1,546 (0.6)	122,953 (43.9)	40,653 (14.5)	89,944 (32.2)	279,780 (100.0)
1985	28,704 (8.5)	1,841 (0.6)	146,435 (43.3)	54,376 (16.1)	106,751 (31.5)	338,107 (100.0)

註 : 72年 이전의 産業別 貸出金 推移는 分類上의 相異點으로 연  
결이 불가능함.

資料 : 通貨金融統計, 韓國銀行, 1984.

총도 부진했으며 成長도 크게 둔화되었다. 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表 3>과 같다. 이 表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총고정투자는 年平均 4.3%의 增加率로서 이는 1975~79년의 20.1% 수준의 약 1/5 밖에 되지 않는 둔화된 수준이며 특히 製造業의 경우 75~79년 5년간의 年平均 23.0%의 눈부신 投資伸張率에서 80~84년의 최근 5년간에는 年平均 1.6%씩 減少한 實績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國民總生産의 成長率도 75~79년 10.0%의 年平均 成長率에서 80~84년에는 그 절반수준인 4.7% 成長率로 鈍化되고 있다.

<表 3> 産業別 固定投資의 增加率

(單位: %)

項 目	1975 ~ 79	1980 ~ 84
總 固 定 投 資	20.1	4.3
製 造 業	23.0	-1.6
農 林 水 産 · 鑛 業	6.3	2.9
建 設 業	48.5	10.1
其他서어비스業	21.1	6.3
國 民 總 生 産	10.0	4.7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85.

### Ⅲ . 地下經濟化現象

위의 産業의 空洞化現象 못지 않게 우리나라 經濟의 암적부위의 하나는 經濟의 地下化現象이다. 地下經濟 (underground economy 또는

subterranean economy)란 문자 그대로 法과 行政을 逃避하여 地下에 움직이고 있는 經濟活動을 말하며 적거나 크거나 나라마다 각종 각양의 形態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sup>2)</sup> 우리나라에서도 오래前부터 脫稅的으로 거래되는 돈이나 흥정을 「뒷돈」 또는 「뒷거래」란 말로 통해 오고 있다. 도심시가지에 늘어나고 있는 「포장마차」, 「리어카아」상인, 行商들을 위시하여 영업감찰없이 장사하는 시장주변의 商人들, 회사간판을 걸고 있으면서도 稅務資料授受를 기피하면서 행해지는 去來活動들이 地下經濟의 현상이다. 地下經濟化의 원인은 주로 脫稅(evasion) 아닌 逃稅(avoidance)에서 비롯되며 그 일부는 경기부진과 취업난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도입과 더불어 유통업계에 널리 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이는 稅制자체가 적자영세기업에 대하여서도 과세된다는 흠결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경기의 好·不好에 불문하고 增加一邊到의 징세행정에 대한 일종의 조세저항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逃稅行爲가 주종으로 이루어지는 地下經濟化現象은 合法的이고 정당한 그리고 정상적인 經濟活動을 음으로 양으로 저해하는 결과물 가져 오는 데 그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美國·日本 등과는 달리 地下와 地上經濟의 구별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美國의 地下經濟는 現金流通을 원칙으로 하는 어느 意味에서 「마피아」(mafia) 등 범죄집단중심경제로 地上經濟와는 독립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구분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韓國

---

註 2) Tanzi, V., Underground Economy in the US and Abroad, Lexington Books, 1982. 參照

의 경우 稅稅 또는 逃稅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큰돈」은 稅務面에서는 地下經濟이지만, 일단 어떤 형태든 預金이나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면 地上經濟로 처리된다. 이러한 「큰돈」의 存在는 앞에서 시사된 바 있듯이 經濟計劃이나 재정금융정책의 이면에서 또는 사전적이고 선행적으로 攪亂시키는 副作用을 낳게 된다. 요즈음의 증권시장의 투기적 과열화현상을 바로 그러한 例로 들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地下經濟의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추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략적인 계산으로 우리나라 GNP 規模의 20%에 해당되는 經濟活動量으로 추정할 때 1985년의 경우 72兆원의 2割인 14兆원 水準에 이를 것으로 본다.<sup>3)</sup> 이는 우리나라 國防豫算의 거의 3倍에 이르는 큰 규모이며 예산액보다 큰 규모를 말한다. 이와같은 地下經濟의 存在와 그나름대로의 急成長生態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富의 分配基幹을 뒤흔들게 되며 투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政府政策의 痲痺化 위외物的生産의 空洞化現象의 加速化를 가져와 나라경제를 파탄케 한다.

---

註 3) 20%추정치의 한 근거로 경제기획원의 經濟活動人口調查('72년 이래 每 4分期 標本調査 실시) 結果와 産業센서스調査(營業鑑札對象事業體 全數調査) 結果간의 罅을 들 수 있다. 例로 1983년의 경우 製造業部門에 있어서의 前記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 취업자수는 3,275千名으로 발표되고 있는 반면 鑛工業센서스調査報告結果 고용자수는 2,432千名으로 밝혀졌다. 취업자수 개념과 고용자수 개념간의 差異는 前者는 自營業主와 無給家族勤勞者 兩者를 가르켜 無給從事者數만큼 더 많은바 韓國銀行 産業聯關分析結果로 밝혀진 1983년의 제조업부문 124千名을 공제한 純粹雇傭人數 基準으로도 「센서스」調査結果가 22.8%나 과소평가되고 있다. 바로 이 비율만큼이 製造業部門의 地下經濟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업 및 서비스業 部門은 兩者間の 罅이 「센서스」가 약 40% 過少報告되고 있어 地下經濟部門은 그만큼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 IV . 對 策

위의 巨視經濟的인 문제의 대응책으로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다음 세가지 問題로 좁혀서 논하여 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金利의 引下政策이며 둘째는 租稅政策의 彈力化이며 셋째로는 企業倫理의 確立問題다.

### 1 . 金利引下政策

金利論爭은 金利引上이 저축을 늘리고 투가증가를 통해 生産을 늘려 物價를 낮출 수 있다는 「맥키논 (McKinnon) 과 쇼 (Shaw)」 효과를 따르느냐 또는 金利引上은 生産費用을 높임으로써 生産원가를 높이고 生産을 위축케 하여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팻트맨 (Patman)」 효과를 믿느냐에 따라 방정식도 달라지고 모형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과도 아전인수격으로 달라진다. 한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맥키논·쇼」 효과를 중시하여 金利引上論 또는 引下慎重論을 폈으나 最近에는 「팻트맨」 효과를 앞세워 金利引下政策을 두둔하고 있는 점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 하겠다.<sup>4)</sup>

지난날의 金利引上이 신규로 저축을 늘렸다기 보다는 기존자금의 이동을 가져오며 公金利引上에 따라 私債金利도 따라 오르게 하여 投資의 위축, 內需의 부진 등으로 所得增加의 둔화를 가져왔으며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貯蓄增大에 역행하는 결과를 자아냈었다고 본다.

---

註 4) Van Wijisbergen, S.: "Stagflationary Effects of Monetary Stabilization Polici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Oct., 1982, pp.133-169; 金大植, 「金融費用增加와 物價上昇에 관한 微視的分析」, 韓國經濟研究院, 研究叢書 23, 1985; 朴元巖, 金利效果의 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 1985年 가을호, 韓國開發研究院.

金利論爭을 떠나서 다음 <表 4>에서 볼 수 있듯이 70年代는 사실상의 보조적 金利政策을 전개했으나 80年代에 들어와서는 物價安定化政策의 시행으로 物價下落은 기업의 實質金融費用을 급상승시킨 결과를 낳게 되어 企業의 原價上昇壓力을 그만큼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만큼 收益性を 低下시키고 있다.

<表 4> 年度別 製造業部門의 實質金融費用의 變動推移

	'76	'77	'78	'79	'80	'81	'82	'83	'84
借入平均利子率	11.8	13.1	12.4	14.4	18.7	18.4	16.0	13.6	14.4
DEFLATOR增加率	16.3	10.5	13.5	16.8	25.9	14.0	6.5	1.6	1.9
實質金融費用	-4.5	2.6	-1.1	-2.4	-7.2	4.4	9.5	12.0	12.5

資料：韓國銀行과 全國經濟人聯合會 調査部

여기서 잠시 우리는 美國과 日本에 있어서의 金利政策의 운영상 기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兩國間의 經濟成果를 재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日本의 경우 금융이 기업을 위하여 존재하며 금융자본은 産業의 長期的인 發展을 도와 주기 위하여 지난 30年間을 長期低利로 資金을 供給해 주어 결과적으로 企業이 발전하고 그러한 企業이 모인 産業의 發展은 금융의 發展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美國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머니·게임」(money game)의 이용율을 높여 주어 金融資本의 短期利益을 극대화케 하여 企業의 金融費用을 높여, 그 결과 企業成長은 저해되고 産業은 空洞化되는 어느 의미에서 金融이 産業과 대립적인 관계, 오히려 産業을 망하게 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간 美國政策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리나라의 實物經濟를 貨幣經濟의 完全한 隸屬物로 만들어 버렸다. 한때 자금이 단자시장에 몰렸

을 때의 企業家는 事業活動은 第2次的인 일이며 第1次的인 일은 매일같이 금융인을 찾아 다녀야 하는 일이 있었음이 상키케 된다. 지금도 단자회사에서 은행으로 行先地만 다르지 거의 같은 상황이라 하겠다.

3低時代의 好機가 도래했다고들 말만 그렇게 야단들이지 一部 製品價格의 下向調整에 그치고 있다. 다시 日本같은 나라는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 두번째로 재할인율을 0.5% 낮추어 4%로 정하고 4月初에는 다시 再引下하여 金融政策을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에 美國, 西獨, 和蘭, 英國 등 거의 모든 나라가 低金利政策으로 대응하고 있다. 3低의 好材는 우리 韓國만의 專有物이 아니며 보다 迅速하게 金利引下 措置가 斷行되었으면 한다.

## 2. 租稅政策의 彈力的 運用

너무 성급한 이상주의적 福祉國家의 建設은 자칫하면 모든 것을 國家財政과 社會에 의지하려는 「오버·쇼셔리제이션」(over-socialization) 現象과 다른 한편으로는 勤勉과 自助意欲을 저상시키게 된다. 英國, 美國, 歐羅巴의 이른바 福祉社會 第3期性病徵候現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조세부담율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임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다음 <表 5>에서 볼 수 있듯이, 70年代 후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租稅負擔率은 1975-79年의 5個年間 平均 16.4%였던 것이 1980-86年 7年間 平均 17.9%로 1.5%「포인트」나 提高되고 있다. 특히 80年代에 접어들어 경기부진과 성장둔화시대의 租稅負擔率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플레이션」時代에 비하여 企業과 國民들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을 쉽게 헤아릴 수 있게 한다.



<表 5 >

租稅負擔率의 變動推移

(單位：%)

	1975 - 79	1980 - 86
GNP 經常 成長 率 (年 平 均)	31.0	15.5
一 般 會 計 增 加 率 (前 年 對 比 平 均)	38.0	15.6
租 稅 負 擔 率	16.4	17.9

註：1975 ~ 84 年까지는 決算기준이며, 1985 年과 1986 年만은 예산기준임.

資料：經濟企劃院

지난 82 年 稅制改編은 경기부진과 低成長에 加중된 金融費用壓力에도 不拘하고 租稅지원대상 및 지원폭의 축소를 기하여 結果적으로 製造業의 投資意慾을 더욱 저상시키는 結果를 가져 왔다. 지금 施行중에 있는 투자공제세제에 의한 감면혜택도 감면한도액이내로 제약되어 있어 그렇게 큰 幅의 지원책으로는 간주될 수 없다.

高稅率 또는 稅制改編問題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징세행정 의 탄력적 운영이라 하겠다. 경기변동의 완충기능과 生産活性化에의 지원, 보완기능을 수행하는 租稅行政이 되어 逃稅 및 脫稅로 나타나는 租稅저항만은 避하도록 보다 積極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稅收目標을 事前에 미리 定해 놓고 景氣의 推移와는 달리 割當配定해 나가는 “땃돼지”式 徵稅行政만은 止揚되어야 하겠다.

특히 實物經濟의 主역으로서 製造工業部門의 企業에 대하여서는 企業經營事情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徵稅政策이 실시되었으면 한다. 製造業部門 企業은 모두 과거와 같이 綠色申告對象業體를 택하여 우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해 두고자 한다.

또한 企業이 負擔하고 있는 準租稅型 各種 公課金도 대폭 줄여주는 一大決斷이 斷行되었으면 한다. 다음 <表 6>은 그러한 準租稅型 各種 公課金의 종류를 한 事例調查結果에서 얻은 대로 收錄해 본 結果다. 각종 會費와 基金의 종류만도 22 가지에 이르며 各種 保險料 5 가지 포함, 모두 27 個 종류의 費·金·料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6> 某輸出業體의 準租稅費用 및 比率明細書

科 目	賣出額對比	科 目	賣出額對比
貿易協會費		赤十字會費	
오퍼登錄會費		産業體特別學級會費	
纖維輸出組合會費		靑少年善導會費	
大韓貿易振興公社特別會費		不遇이웃돕기贊助金	
合成樹脂輸出組合會費		報勲誠金	
商工會費	0.22	小計	0.03
玩具組合會費		自動車保險料	0.07
檢査費	0.08	火災保險料	0.06
通關費	0.16	保證保險料	0.17
小計	0.28	概算保險料	0.12
韓日親善協會費		職業訓練促進基金	0.06
産業安全協會費		勤勞福祉基金	0.01
道路交通安全協會費		醫療保險料	0.28
消防安全協會費		小計	1.17
電氣協會費			
檢査會費		合計	1.00

### 3. 企業倫理의 確立問題

돈에 꼬리가 달린 것도 아니고 동물아닌 사람이 있을 수 없으며 職業에 귀천이 있을 수 없고 貧富에 善惡이 따를 수는 없다. 嚴格한 의미에서 우리는 效用을 가져다 주는 經濟財나 用役을 生産하는 企業人과 그러한 企業人들이 모인 企業에 대하여서는 倫理中立의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분단된 국토위에서 民主資本主義나 아니면 獨裁共產主義나, 平和속의 繁榮을 이룩하여 勝共統一이나 아니면 다시 戰爭속의 적화통일이냐, 보다 자유롭고 正義롭고 平等스러운 富裕한 삶이냐 아니면 통제아래 모두 못살게 되는 가난의 생지옥이냐의 民族史的으로 매우 중요한 岐路에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企業人과 企業倫理에 中立的인 立場을 유보해 두고자 한다.

오늘날 企業人은 自由民主主義의 理念을 實現하고 平和와 번영속에 통일을 成就할 수 있는 力量培養을 우리 손으로 이룩해야 하는 莫重한 使命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곧 우리 社會, 民族 그리고 國家의 安全保障 問題로 직결된다.

이렇게 볼 때 企業倫理의 第1課題는 우리 經濟의 來日의 밝은 投資收益의 展望아래 産業體로의 持續的인 實物投資를 행하는 일이다. 다가올 未來는 高危險負擔 - 高收益 (high risk - high return) 時代인 바 經營者로서 科學·技術·情報 등의 自己革新의 能力을 갖추어야 하며 未來社會에 대한 信念과 先見之明 그리고 決斷力을 갖춘 指導者라야 한다. 그러한 信念, 先見性 그리고 決斷力에는 科學的인 知識·技術의 「노우·하우」(know-how)와 더불어 國際化와 變換하는 消費 需要의 多樣化에 대한 敏銳한 感性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나라 企業家 類型을 크게 다음 두가지 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본다. 그 첫째는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도전과 혁신 속에

장기간에 걸친 物的生産 위주의 産業家的 眞性 「슈페터리언」企業家 ( a true Schumpeterian entrepreneur )를 말하며 다음 둘째 型은 시장주변에서 短期投機的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商業家的 賭博士장삿군 ( a gambling merchant )라 하겠다. 물론 오늘날 우리 經濟가 필요로 하는 企業家型은 전자인 第1型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企業人倫理의 第2 課題는 自立精神과 責任經營觀의 確立이라 하겠다. 우리 企業人의 이상적인 미래상은 政府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 獨立的이고 自由로운 企業家가 되는 일이다. 누구로부터도 구속받지 않는 가운데 創意力을 한껏 發揮하며 자기 「아이디어」( idea)를 實現하고 그 代價로서 높은 收益을 올리는 責任있는 經營者가 되는 人間的 成就慾을 추구하는 데 企業家의 이상이 두어져야 한다.

企業 公開化와 政府干與를 못마땅히 생각하는 企業家들의 무념섞인 이야기로 自己責任經營下의 企業을 두고 「이미 내 企業이 아니다」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 바 이는 실로 매우 無責任하고도 안이한 經營姿勢에서 緣由된 극히 危險스러운 思考方式이다. 이렇다면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國營企業體의 長과 같은 無責任하고 방만한 經營觀과 아무런 差異가 없게 된다. 經營에 身命을 바쳐 責任을 지고 株主와 國民에게 그 소임과 책임을 못다했을 때엔 자리를 유능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세째번 企業人의 倫理的 課題는 準公人的인 건전한 私生活과 正直·勤儉·節約의 垂範者가 되어야 한다. 「내 돈 내가 벌어서 쓴다」는 식의 自由放從的이며 퇴폐적인 私生活과 부정직·사치풍조에 휘말리면 自己家庭, 自己企業의 從業員 그리고 株主와 顧客으로부터 언젠가는 信賴와 존경을 잃게 된다는 점 명심해야 될 줄 안다.

< 第 2 主題 >

國際價格構造 變化의 活用方案

— 產業構造改編과 產業政策의 方向 —

朴 宇 熙

( 經博 · 서울大 教授 )



## I . 國際價格構造의 變化

요즘 尙간에는 原油價格, 國際金利, 달러貨價値가 모두 한꺼번에 떨어진다 하여 펴 반기고 있다. 소위 3 低現象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하여 이 好機를 利用, 經濟를 한단계 높히려는 政策이 官民 모두에 널리 퍼지고 있다. 만일 55억달러가 넘는 原油輸入이 年間 10억달러程度 節約되면, 500억달러가 넘는 外債의 利子負擔이 年間 10억달러 줄어들게 되면, 또 300억달러가 넘는 輸出과 輸入이 各各 10억달러씩 늘고 줄어들게만 될 수 있더라도, 이 건 정말 國際價格 構造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얻어지는 經濟利得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기름값이 떨어져 世界景氣가 活性化되고 貿易量이 커지면 우리 輸出에 그만큼 더 利得이 되고, 國際金利가 떨어져 美國·유럽·第3世界의 投資가 活性化되면, 게다가 換率變動으로 美國市場이 커지고 日本市場이 넓어지게 되면, 위의 단순한 第1次的 經濟計算을 훨씬 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原油價下落이 앞으로 3~5年間 더, 엔貨價値 上昇이 90년까지 이어진다면, 또 國際金利가 低金利時代로 安着된다면 이런 趨勢는 더욱 나아질 것이다. 지금 世界經濟 豫測機關들은 기름값·돈값·돈의 對外價値變動이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를 점치는데 한창이다. 예컨대 原油價가 배럴당 10달러 下落하면 先進國은 앞으로 2年間 850억달러의 實質所得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인플레 下落과 金利下落을 超來할 것이라 보고 있다. 原油를 輸入하는 나라는 350억달러 以上の 利得을 얻게 될 것이고 특히 外債를 지고 있는 나라는 直接的으로 150億달러 利子負擔 輕減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나라는 金

金利下와 先進國의 경기진작으로 輸出需要가 增加, 200억달러의 收益을 올리는 間接效果도 있을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豫測은 그리 正確한 것이 아니다. 原油價下落, 金利下落, 달러貨價値下落이 우리나라 經濟에 미치는 豫測도 이 세 價格이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주먹구구의 단계를 그리 넘지 못하고 있다.

## II . 3 低推移의 展望

原油價가 배럴당 36 달러에서 20 달러로, 15 달러에서 10 달러 이하로 급강하하다가 어느 선에 정착할 것인지, 또 OPEC 와 非 OPEC 의 협상으로 再上昇할 것인지 누구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國際金利가 G 5 의 合意로 이제 低金利時代로 들어선다고 하지만 어느 線에서 安定될 것인지, 原油價의 變動에 따라 金利도 變할 것인지 이 역시 잘 모르고 있다. 國際換率은 日本의 輸出競爭力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展開되고 있으므로 달러價値下落, 즉 恩貨價値上昇이 계속될 것임에는 틀림 없으나 어느 선에서 머물게 될 것인지, 이것이 달러당 170 엔인지 150 엔인지 確實치 않고, 이렇게 安定된 후에도 日本商品의 國際競爭力이 다시 나아지면 그후 換率體制가 또 어떻게 變할 것인지, 이 또한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세 價格構造가 앞으로 얼마동안은 下向趨勢인 것만은 틀림없겠지만 그 기간과 幅을 正確히 알 수 없는 지금의 立場에선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政策 구사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주먹구구로는 그 하한선을 모르는채 原油價下落 趨勢는 3~5年, 金利下落도 그만큼, 恩貨價値 上昇만은 더 오래 지속적인 趨勢를 보일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 Ⅲ . 韓 · 日經濟關係의 特質과 國產開發對策

그런데 原油價나 金利가 떨어지면 우리經濟에 도움된다는건 누구나 잘 아는 일이므로, 또 엔貨價値上昇도 우리 輸出에 큰 도움이 되고, 實際로도 纖維·電子·自動車등 一部 商品의 輸出이 그때문에 30 ~ 40 %씩 늘고 있는건 事實이지만, 한가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런 J커브의 上昇趨勢가 韓·日 經濟關係에선 언제 끝질 될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엔貨價値上昇이 우리와 日本間의 經濟去來에 미치는 影響分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다. 언필칭 엔貨가 30 %以上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의 對日輸出價格競爭力이 그만큼 올라가고 美國이나 유럽市場에서도 또 그만큼 올라갈 것으로 짐작, 소위 J커브를 따라 얼마후 對日輸出이 늘고 輸入이 減少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작년 9월 엔貨價値가 上昇한 뒤의 統計를 봐도 얼마나 非現實的인지 잘 알 수 있다. 올해들어 輸出·內需 모두 上昇勢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對日 輸出은 크게 늘지 않고 貿易赤子는 오히려 늘고만 있다. 輸入이 증가한 것은 電子部品·機械類·自動車部品·精密機器 및 部品·보일러등 産業機械類를 많이 더 오르기 전에 앞당겨 輸入한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韓·日經濟關係의 構造와 本質을 잘 모르는 見解에 불과하다. 換率의 變動은 다른나라와의 相對價格變動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日本經濟의 本質은 강한 産業競爭力에 있기 때문에 당장은 價格競爭力이 엔貨價値上昇으로 그만큼 줄어들고 따라서 限界企業이 고전, 輸出이 줄어들게 되지만 여태껏 쌓아놓은 資本蓄積으로 「原價 50 % 節減」 運動을 벌일 수 있고, 숨겨놓은 技術과 마아케팅 戰略으로, 또 선물환거래등 外換造作 (operation) 으로 환차손을

커버하고 나아가 최근에 自動化까지 效率的으로 推進하고 있기 때문에 역 J 커브의 끝이 얼마안가 곧 뒤바뀌게 된다. 게다가 原資材輸入이 엔貨 價値上昇으로 30% 이상 뚝 떨어지고 이것을 使用하는 企業을 通해 全産業에 擴散, 떨어진 價格競爭力을 回復시킨다. 지금 電力등 에너지 産業은 물론, 輸入에 연관된 産業의 利潤은 급상승하고 이것이 對外 債權이나 投資의 送金增大와 아울러 輸出價額減少를 곧 커버할 수 있게 한다. 만일 달러당 170 엔에 일단 安定된다면, 역 J 커브의 끝은 얼마안가 다시 반전될지도 모른다.

우리로서는 엔貨價値가 上昇한다 하여 지금 크게 반기고 있다. 달러에는 어느 정도 連動되고 있으나 유럽 여러나라의 通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問題는 이런 平價切下는 輸出이 느는 반면, 物價가 오르고 外債의 元貨價還 負擔이 그만큼 늘고, 또 部品 素材 및 産業機械類의 輸入非彈力性으로 輸入 價額만 늘리는 結果를 초래하게 된다. 原油價下落으로 物價安定에는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平價切下만으로 日本과 正反對의 現象이 나타난다. 특히 對日貿易逆調는 오히려 深化되고 있다. 지금 輸入 代替, 즉 部品 및 素材의 國産化가 輸入規模 100萬달러 이상인 514個 品目中 121個品目の 國産開發對策을 서두르고 있긴 하나 그것이 얼마만큼 可能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全體 製造業의 輸出에 따른 輸入誘發係數가 37% 정도인데 이것이 주로 對日貿易에 關聯된 것이고 보면 이번 機會에 國産化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만성적인 對日貿易赤字의 시정은 물론, 우리 經濟의 自立度를 높이는 데도 큰 고비가 된다. 우리로서는 J 커브의 끝은 日本과의 競爭에 관한 한, 엔貨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趨勢가 아닌 한, 얼마 안가 下向하게 될 可能性이 크다. 品目에 따라서는 엔貨價値 上昇으로 반도체·전자렌지·기계·철강·시멘트·타이어와 가방·신발·섬유제품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價格競爭力이

당장 30% 정도上昇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輸出이 늘 수 있는 品目들이었으나 이도 얼마 안가면 기운이 빠질 것이고, 게다가 輸入 原資材 값이 오르고 部品·素材·産業機械의 輸入 값이 오르고 엔借款의 元利金 償還負擔이 늘어나게 되면 밑에서부터 經濟力이 弱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原油價 下落이나 金利下落이 이런 힘의 弱化를 막아주는 것은 事實이지만, 日本에 관한 한 우리 競爭力의 엣지(Edge)는 그리 오래 견딜 수 없을 可能性이 크다.

#### Ⅳ. 合理的인 産業政策의 方向

國際價格構造와 韓·日經濟의 特質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對應戰略은 곧 자명해 진다.

무엇보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換率·金利·油價 등 價格政策은 물론 産業政策도 失機하지 않고 때에 맞춰 그 幅과 速度를 잘 調整해야 한다. 國際原油價, 金利·換率變動을 正確히 豫測하여 그에 對應, 적절한 産業政策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 複數通貨 바스켓속의 엔貨의 比重을 더 올리고 外換保有高 중 엔貨의 比重도 높여야 하며, 앞으로 對日輸出은 엔貨베이스로, 輸入은 달러베이스로 하고 엔貨債權의 長期借入時 스와프(Swap)나 더블커런시 론(Double Currency Loan)등을 利用할 必要性도 있는 外換政策을 再調整해야 하나, 또 우리의 對美換率 政策선을 商品·資本·觀光·人力등 諸般要因을 勘案, 輸出擴大에 맞춰 잘 調整해야 하나, 나아가 國內 原油價를 내리고 이것을 택시값 얼마·고속버스값 얼마를 약간씩 내리면서 그것도 消費者에게 또 運轉技士에게 惠澤을 分散시키는 政策을 피하면서도 또 國際金利落에 맞춰 國內金利를 낮추는 것도 重要하지만 이보다 더욱 金요한

것은 이번 機會에 産業政策을 올바르게 잡아나가는 일일 것이다. 지금 景氣와 成長이 나아지고 있는 趨勢에 있으므로 세가지 價格構造 變動이 좋은 方向으로 전개되고 있을 동안 産業構造 高度化나 技術革新, 外債減少, 産業體質改善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80年中 原油價가 오르고 國際金利가 急騰하였기 때문에 企業體質이 더욱 弱해지고 부채가 累積된 것인데 反해 지금 體質을 強化하여 外債를 갚도록 그 對策을 品目別·産業別·企業別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經濟政策目標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모두 잡으려는 慾心을 버리고 또 힘을 여러군데 分散, 나눠 먹기로 그치지 말면서, 한곳으로 集中, 經濟의 바탕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企業의 集中, 資本蓄積과 技術革新이 기해지도록 하고 이로써 擴大再生産構造가 自生的으로 構築되게 그 바탕을 다져야만 한다.

앞으로의 産業政策은 섬유, 신발, 자동차 등 지금 輸出이 잘되고 있는 品目이 계속 신장되도록 해주고, 반면 늘고 있는 對日輸入品目인 部品, 素材, 産業機械를 빠른 期日內에 國産化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이다. 우리의 現 産業構造로 보아 이런 品目の 國産화와 海外輸出이 可能토록 競爭力이 배양된다면 對日貿易逆調은 물론 世界市場의 3%까지 능히 점할 수 있게도 될 것이다. 輸入貨價値上昇으로 거의 40%나 價格隔差가 난 요즘 이를 利用, 이들 品目の 生産性, 品質向上, 마케팅, 技術人力向上이 기해져야만 한다.

政府와 企業은 이제 모두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대단한 意慾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問題는 그리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이야말로 경제발전단계상 가장 넘기 힘든 고비며 우리 경제의 처지로 보아서도 가장 다루기 힘든 과제다. 특히 日本과 競爭하면서 日本의 部品·素材·機械를 쓰지 않고도 美國이나

東南亞에서 오히려 우리 것이 팔릴 수 있게끔 되려면 정말 큰 결심과 홍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經濟對象國인 美國만 해도 우리와 똑같은 好機를 맞고 있고 더 나은 業績을 지금 쌓고 있다. 대만은 우리보다 나은 物價, 成長, 雇傭, 體質, 국제수지여건인데도 國內 油價를 두번씩이나, 國內銀行들의 金利도 내리면서 國際競爭力을 배양, 이제는 中小企業의 규모경제화, 鐵鋼, 自動車등 14個 大規模 프로젝트의 展開로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다. 우리보다 나은 것을 나은대로 保存하면서 못한 것을 하나씩 크게 키워나가고 있다.

農村開發도, 部門間 不均衡是正도, 社會福祉와 低賃金解消도, 不況産業의 合理化와 不實企業整理도 勿論 重要하다. 그러나 經濟政策에는 優先順位가 있고 強弱의 比重이 있다. 특히 不實企業整理는 한 企業의 不實만도 6,000억원이나 되어 희생이 많이 따르게 되는데 이런 것이 20여 개나 된다면, 이런 좋은 기회에 이 곳으로 다 집어 넣어 버린다면 무슨 힘으로 3低의 好機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 버린 자식 찾는데 집안을 다 동원하기 보다 잘난 자식을 도와 우리 힘을 더 키워야 할 때다. 製造業投資를 늘려 經濟成長의 潛在力을 키우는 것과 不實된 企業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 討 論

# 轉換期 韓國經濟의 對應戰略

### 參 席 者

主題發表者：韓 基 春（外 國 語 大 教 授）  
                  朴 宇 熙（서 울 大 教 授）  
討論參加者：林 東 昇（貿 易 協 會 常 務）  
                  王 然 均（中 央 大 教 授）  
                  朴 振 根（延 世 大 教 授）  
                  李 奎 億（K D I 先 任 研 究 委 員）  
司 會：具 石 謨（韓 國 經 濟 研 究 院 副 院 長）

· 日時：1986. 3. 24.

· 場所：全經聯會館 大會議室



## 討 論

司 會：두 分의 主題發表內容을 중심으로 討論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타없는 意見 開陳을 바라며, 먼저 林常務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林東昇：韓教授와 저는 思考의 脈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企業, 製造業, 輸出을 중시하는 思考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끔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學者는 현실에 대한 問題意識을 제시하면 그만이지만 저희 같이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問題提起보다는 그것의 對應方案, 즉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代案을 案出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합니다. 오늘 討論도 이와같은 視角에서 展開할까 합니다.

金利問題에 관해서 보면 작년, 재작년 金利가 높다고들 할 때 저는 金利引下에 대한 확실한 根據를 잡지못해 중립적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는 國內外 經濟與件이 變化됨에 따라 金利引下의 당위성을 포착하였습니다. 國際金利가 계속 下落하고 있고, 日本金利는 우리의 半水準도 못미치는데다 이번에 公正割引率을 4%帶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臺灣도 작년초 이래 5번에 걸친 金利引下로 實質金利의 幅이 7.5 ~ 6.25% 水準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서도 우리의 金融費用負擔이 相對적으로 얼마나 높은가가 明證되는 셈입니다. 우리의 實質金利水準은 13 ~ 14%인데 이 水準에서는 企業이 收益을 올릴 수도 없고 投資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韓教授께서 지적하신 金融部門과 實物部門 間의 艱 緩和를 위해서라도 金利緩和措置는 단행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의 通貨水準이 適正線인가의 여부도 타진해 봐야겠습니다. 金利는 通貨需給 不均衡과 직결되므로 金利引下問題는 通貨量 增加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通貨供給은 物價上昇이라는 制約要因이 있어 그간 安定化政策을 표방하면서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金利問題의 열쇠는 「通貨增加는 物價上昇을 가져온다」는 理論을 깨뜨릴 수 있는 說得力있는 反證의 提示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流動性規制의 理論根據가 妥當性を 잃어 企業이 金融問題때문에 고통받는 程度가 是正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通貨水準과 物價와의 關係를 糾明해 보기 위해 GNP를 分母,  $M_2$ 를 分子로 보고 그 結果值의 國家間 比較를 해보면 우리가 37.6%, 臺灣 94.9%, 日本 92.5%, 美國 62.8%인데 이는 우리의 GNP 對比  $M_2$ 의 水準이 相對적으로 낮음을 示唆해 주고 있습니다.  $M_2$ 는 貯蓄性預金を 포함하고 있는 바 우리의  $M_2$ 水準은 增加幅에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通貨가 增加해도 이것이 貯蓄으로 환수되어 버린다면 物價에의 壓力은 없을 것이므로 物價上昇은  $M_1$ 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金利引下는 金融緩和, 즉 通貨供給 增加를 隨伴하는데 마찰  $k$ 를 높여 貨幣流通速度를 줄이고 通貨를 貯蓄性預金으로 吸收한다면 通貨增加가 物價上昇을 招來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朴教授 發表內容에 대해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朴教授는 엔高에 따른 Jcurve의 反轉을 걱정하면서 輸出增大와 對日貿易 不均衡 是正을 위한 國産化對策을 強調하였습니다. 國産化對策은 政府가 下向一方으로 企業에 強要할 것이 아니라 企業이 部品, 素材, 産業機械類를 輸入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輸入代替를 自發적으로 하도록 하고 政府는 이 과정에서 發生하는 問題, 즉 投資資金, 需要處 確保, 租稅惠澤 등 각종 支援政策을 擔當하면 될 것 같습니다.

司會: 通貨問題에 대해서는 저도 同感입니다. 實物部門에 비해 金融部門이 못미치고 있으므로 金利는 높고 物價는 낮아 投資가 萎縮되고 成長이 鈍化됐다고 봅니다. 이 問題를 擴張시켜 王教授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王然均：지난 20年間 우리나라의 通貨增加率 變動推移를 보면 일정한 週期를 갖고 순환적으로 變化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循環的 變動의 原因은 輸出動向임을 알 수 있는 데 輸出이 增加하면 投資와 成長이 增加했고 이와 並行, 通貨가 增加하여 實物要因과 貨幣要因의 循環週期가 같았습니다. 이것은 政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外生的 要因에 의해 通貨가 增加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結果 政府의 反景氣的 (anti-cyclical) 經濟政策은 不在하고 오히려 親景氣的 經濟政策의 展開로 말미암아 好況일 때는 무리하게 景氣가 過熱되고 不況일 때는 加速的으로 沈滯局面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이와같은 政策 運用 行態는 近年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어 작년, 재작년 低輸出, 低成長 期에도 通貨緊縮政策을 固守하여 金리가 오르고 金融費用引上을 招來케 하여 企業活動을 더욱 萎縮케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초에 豫測하던대 작년말에는 金리가 2%정도 下落할 것으로 보고 이는 政策的 當爲性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3低時代로 與件이 好轉되었으니 金利政策을 비롯 다른 巨視政策에도 硬直的인 자세를 버리고 伸縮性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方案을 提示해 보면 ① 우리의 成長潛在力으로 보아 8~9% 成長은 무난할 것이므로 物價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成長促進政策으로의 轉換을 바라며 ② 供給重視經濟學의 視角에서 法人稅引下, 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設備投資에 대한 支援方式은 運轉資金이나 投機資金으로 돌려지지 않도록 事後에 設備를 確認하고 支援하는 事後租稅控除가 좋을 듯 합니다. ③ 金利問題에 있어서는 高金利로 貯蓄을 誘因하기 보다는 財形貯蓄에 所得稅를 減免하는 것처럼 稅制上의 誘因策이 講究되었으면 좋겠습니다. ④ 物價安定을 위해 公正去來法을 통한 價格統制를 嚴格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長期的으로

계속되면 品質低下, 技術開發 不振, 生産性 低下 등으로 企業體質이 弱  
化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高價格暴利行爲에 대해서만 制裁를 가했  
으면 합니다.

朴振根 : 朴教授의 論議에 基本的인 視角을 같이하면서 엔高·低달러推  
移의 不確實性和 輸入代替化, 國産開發對策에 따른 企業投資의 方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問題가 되고 있는 엔高現象부터보면 엔  
貨가 2-3年前 美國經濟學者들이 豫測한 180円帶를 이미 하회하고  
있고 日本側으로서도 어떻게해서든 거기에 대한 對策을 樹立할 것으로  
展望되어 엔高의 持續은 앞으로 期待難이라고 봅니다. 또한 달러貨  
側面에서 보면 美聯邦政府의 2,000億 豫算赤字를 중심으로 볼 때 國  
公債 賣却操作에 따른 crowding out effect로 民間의 資金壓迫이 加  
重될 것이므로 金利가 上昇할 이유가 상존하고 있으며 달러貨 價値가  
지속적으로 下落하면 輸入價額이 增加하여 物價安定을 威脅하게 될 것  
이므로 달러貨 價値下落도 限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뚜렷한 豫測은 불가능하나 엔高·低달러를  
이용한 우리의 輸入代替, 國産化 등 産業政策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으로 믿습니다. 國産開發對策에 대해서는 國民經濟的 次元에서의 要求  
(social interest)와 企業의 立場, 즉 企業의 利潤(private interest)  
이 調和를 이룰 수 있는 風土를 造成, 內實있는 成果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政府는 企業이 既存施設의 稼動率만 높이는 消極  
的 態度를 버리고 확실한 投資收益의 展望아래 新規投資를 할 수 있  
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附記하건대 특히 우리가 警戒해야 할 事項은 石油波動時 우리가 보  
았듯이 日本企業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屬性을 갖고 있으며  
로 이번 機會에 우리 經濟가 體質을 健實化하지 않으면 3年정도 지

난 뒤에는 더욱 競爭力 높은 日本企業과 상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李奎億 : 朴教授의 發表內容과 관련 日本經濟의 特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對應方案을 거론할까 합니다. 한마디로 日本經濟는 外生的인 충격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잘해나가기 때문에 一般經濟理論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몇가지 들어보면 우선 日本은 個人은 가난하나 國家는 부유하다는 점입니다. 즉 個人次元에서 보면 단돈 10 円을 아끼는 節約하는 姿勢와 늘면 오히려 불안한 勤勉性이 밑바탕을 이루면서 全體의 福祉를 指向하는 共同體意識이 강합니다. 一例로 오일쇼크가 생겼을때 우리는 實物보다는 金融에 치중하여 충격요법을 썼읍니다만, 日本은 松下電氣의 社長이 3個月동안 工場에서 기거하면서 對策에 腐心했던 事例에서 볼 수 있듯이 非價格要因인 品質, 生産性, 製品開發 등 實物部門에 중점을 두고 對處하였읍니다. 또한 日本은 高度화된 情報社會 (information society)를 이루고 있어 just in time method 에 의한 적절한 需給調節로 在庫 (inventory)가 없읍니다. 이는 그만큼 費用節減을 해나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特徵으로 日本의 中小企業은 適者生存이 치열하여 大企業보다 오히려 體質이 强하다는 점입니다.

이와같은 몇가지 日本經濟의 特徵에 유념하면서 엔高에 따른 우리의 産業構造 改編方向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로는 租稅減免對象을 확장하여 企業活動에 대한 租稅誘因을 強化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産業構造 調整時 不況, 斜陽産業이 쉽게 퇴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造成하기 위해 퇴출장벽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企業間의 關係를 수직 또는 수평관계가 아닌 Network 體制로 構成할 것을 提案합니다.

司 會 : 個人的으로도 日本의 體質, 競爭力이 強化되는 것에 우리가

철저히 對備하지 않으면 對日本 依存性이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그럼 討論에 이어 主題發表者의 答辯이 있겠습니다.

韓基春：金利를 내려야 한다는 討論者의 意見과는 同感입니다. 王教授께서는 引下幅을 2%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1%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政府의 積極的인 成長政策을 主張하 王教授의 意見에도 동감입니다. 8~9% 成長을 하기 위해서는 通貨供給增加가 있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物價上昇을 가져온다해도 mild inflation 이라면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巨視經濟政策과 관련 政府規制緩和 (deregulation), 작은 政府 (little government)가 이루어져야 할 것도 添言합니다.

朴宇熙：林常務께서 말씀하신 政府의 國產開發對策에 대한 저의 立場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對日本關係에서 볼 때 그것이 容易하지 않다는 것을 환기하길 바라면서 이의 強力한 推進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李委員께서 말씀하신 産業構造 調整과 관련 租稅減免法에 대해서는 不實企業을 살리기 위해서까지 租稅減免의 惠澤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막대한 費用을 감수하면서까지 不實企業의 倒産을 막는다는 것은 社會正義, 經濟政策上 問題가 있다고 봅니다.

司 會：오늘의 討議를 綜合해 보면 稅制, 金利, 投資, 産業構造로 集約된다고 하겠습니다. 經濟與件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이들 政策의 運用上 制約要因이 解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3低時代의 對應戰略도 과거의 政策을 硬直的으로 踏襲하는 것이 아니라 與件에 副應하면서 이를 活用할 수 있도록 彈力的인 改善이 이루어지는 方向에서 摸索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랜時間 討議에 參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주신 聽家 여러분께 感謝드리며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